

南·北·美 3각 정상회담 연내 가능할까

2·13 북핵 타결 이후 북미관계가 해빙 조짐을 보이면서 남북한과 미국 간 3각 정상회담이 연내 실현될 수 있을지 관심을 끌고 있다.

그간 북핵 관련 정상회담의 결실들이 왜든 북핵과 대북 금융제재 문제 해결의 속도를 감안할 때 그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만은 아니라는 분석이 설득력있게 제기된다.

물론 속단은 금물이다. “미북간에는 아직 완전한 신뢰가 회복되지 않았고, 2·13 합의도 이행 단계별로 폭발력이 강한 뇌관이 숨어 있어 언제 터질지 모르다”는게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평가다.

◇**韓美정상회담 가능성** = 일단 노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간 정상회담은

북핵 해법 가다·美-北 관계 정상화 순항 ‘긍정적’

2·13 합의 단계별 뇌관 남아 “속단은 금물” 지적도

이미 기정사실화됐다는 관측이 높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한미 정부 실무진들이 정상회담 가능성을 타진해왔고, 지난달 백종천 청와대 외교안보 정책실장이 워싱턴을 방문,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과 스티븐 해들리 백악관 국가안보담당 보좌관 등을 만난 뒤 그 가능성을 확인했다.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협정이 한미정상회담과 연계된 것은 아니지만 FTA 협상이 잘 마무리되고, 북한의 초기이행조치가 당초 약속대로 실

현되면 회담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이르면 6월쯤 회담이 성사될 개연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南北정상회담 가능성** = 남북간에는 그간 노 대통령과 김 위원장간 회담 가능성이 꾸준히 거론돼 왔다. 정동영 전 통일부장관은 지난해 워싱턴을 방문, 남북정상회담이 이미 상당 수준 논의돼 있음을 분명히 했다.

최근 이해찬 전 총리의 남북을 계기로 그간 설 수준에 머물던 남북정 상회담 추진 가능성이 보다 구체화하

고 있는 양상이다.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 7주년인 오는 6월 15일이나 광복절인 8월 15일에 회담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는 설부터 전망도 나온다.

◇**北美(또는 南北美) 정상회담 가능성** = 미국의 분위기는 다소 부정적이다. 부시 행정부가 이라크전 후유증에 시달려 외교적 성과가 다급한 상황인 한 김 위원장과 대면할 정도의 분위기는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6자회담 2·13 합의에서 북핵 해법의 가다에 잡혔고 정전협정 당사자인 미북 간의 관계정상화 논의가 무르익으면서 북미 또는 남북미 정상 회담도 완전 배제할 수 없게 나타나고 있다.

◇**南北美중 4자회담 가능성** = 이 나리오는 현실성은 높지 않지만 부시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하노이 APEC 정상회담에서 한국전쟁 종전 선언의지를 밝힌 사실을 감안, 임기가 종료되는 2009년 1월 이전에 남북한과 미국, 중국 등 4개국 지도자가 한자리에 만나는 ‘역사적인 대사건’이 성사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는 기대감이 없지는 않다. /워싱턴=연합뉴스

힐 “김계관-엘바라데이 면담 불발, 나쁜 신호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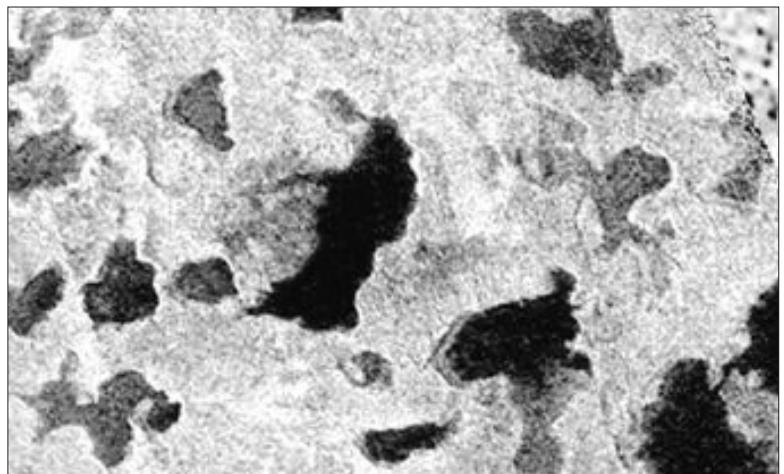
북핵 6자회담 미국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아태담당 차관보는 14일 북한측 수석대표인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과 모하메드 엘바라데이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의 면담 불발이 나쁜 신호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힐 차관보는 이날 베이징 서우두공 항에 도착, 13~14일 평양을 방문한 엘바라데이 사무총장이 김 부상과 만나지 못한 것과 관련한 질문에 “김 부상이 6자회담 준비 등으로 바쁘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엘바라데이 총장은 분명히 좋은 신호를 받고 있으며, 그는 실질적인 만남을 가졌다”고 말하고 “엘바라데이 총장을 내일(15일) 만날 것으로 기대하며, 그를 만나게 되면 상황을 더 잘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베이징=연합뉴스



토성 위성 타이탄의 북극권에서 여러 개의 큰 바다 형상들이 발견됐다. 토성 탐사선 카시니호가 보내온 영상 가운데 액체 메탄이나 에탄이 가득 차 겹쳐 보이는 부분이 바다로 추정된다. /AP=연합뉴스

토성 위성 타이탄에 ‘거대한 바다’ 수백개

토성 위성 타이탄의 북극권에서 액체 메탄이나 에탄이 가득 차 있는 것으로 보이는 여러 개의 큰 바다 형상들이 발견됐다고 스페이스 닷컴이 13일 보도했다.

토성 탐사선 카시니호가 보내온 영상은 타이탄의 북극에 가까운 고위도 지역에 폭이 수백km나 되는 바다들이 곳곳에 흩어져 있고 이보다 작은 수십km 너비의 바다들도 수백개나 분포돼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큰 바다들 가운데 하나는 넓이가

최소한 10만km²로 카스피해보다 약간 작고 북아메리카의 5대호들보다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자들은 카시니호가 보내온 레이다 이미지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매우 짙은 색깔로 나타난 지형들을 발견했는데 이것들이 액체 바다라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지만 형태와 짙은 색깔은 매끈한 표면을 시사하는 것이며 주변의 다른 특징들 역시 액체의 존재를 가리키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BDA-美 은행 거래금지 결정

美, BDA 제재조치 곧 발표

미국 재무부는 돈세탁 등 북한의 불법자금 거래를 막아온 마카오의 방코델타아시아(BDA) 은행에 대한 제재조치로 미국 은행들이 BDA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결정, 금명간 이를 공식 발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충격과 예상된다.

재무부 관리는 13일 지난 18개월간 조사를 진행해온 BDA 처리 문제와 관련, “BDA에 대한 결정을 이번 주 마무리할 계획”이라며 “공식 발표는 아마도 14일 또는 15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이번 발표를 통해 BDA를 ‘돈세탁 우려대상기관’에서 ‘돈세탁 대상기관’으로 공식 지정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미 연방검찰은 돈세탁에 연루된 BDA의 주요 임원을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재무부가 이런 조치를 취할 경우 BDA의 외환거래 기능 정지로 파산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관측되며, 마카오 당국은 청산을 위해 매각 또는



인수합병(M&A)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로이터 통신은 이날 미 관리의 말을 인용, 재무부가 이 같은 조치를 내림으로써 마카오 당국은 BDA의 북 한 동결계좌 해제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워싱턴=연합뉴스

스텔스기 역사 속으로... 폐기 과정도 비밀

〈F-117 전폭기〉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스텔스기’로 이름난 F-117 전폭기(일명 나이트호크)가 12일 마지막 비행을 위해 뉴멕시코주 홀러먼기지에서 이륙하고 있다. 미 공군은 오는 2009년 말까지 현재 운용중인 55대의 F-117 전폭기를 모두 퇴역시킬 계획이다. /AP=연합뉴스

미국 비자 내년부터 면제 가능성

한국 등 ‘비자 면제국 확대’ 美 상원 통과

미국 상원은 13일 자국 내 테러 예방 조치를 강화하고 대테러전 동맹국에 비자면제프로그램(VWP) 가입을 권유하는 내용의 국토안보강화법안을 6대 38로 가결했다. 이 법안에는 국토안보부가 VWP에 따라 무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을 철저히 관리하는 대신 대 테러전쟁 동맹국의 경우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VWP를 적용토록 하는 내용이 들어 있어 한국의 VWP 가입 여부가 주목된다.

이 법안의 ‘VWP 현대화’ 조항은

VWP의 보안요건을 강화하는 대신 일정 요건을 갖춘 대 테러전쟁 우방에 대해서는 현재 비자거부율이 3% 이상인 경우 일률적으로 VWP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완화하도록 하는 등 VWP 확대방향을 밝히고 있다. 즉 국토안보부가 공랑을 통해 들어온 외국인 중 97% 이상의 행적을 입출국 당일 확인할 수 있는 보안체제를 갖춘 시점부터 국토부와 협의해 우방에 대해 비자거부를 3% 규정 적용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법안은 그러나 VWP 확대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해당 국가는 대테러 관련 협력 및 정보 공유, 비자거부율의 지속적인 하락 등 국토안보부와 국무부가 제시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이 하원과의 조율을 통해 최종 확정될 경우 한국 정부가 추진해온 VWP 가입시기도 앞당겨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조지 부시 대통령이 법안 내용 중 공랑 검색요원 등의 단체교섭권을 이유로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고 하원이 가결한 법안과도 상당한 차이가 있어 그대로 시행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워싱턴=연합뉴스

中華 민족주의 극성... 國服도 정한다

“漢代의 복장을 국복으로”

중국어 ‘양화’에서 ‘국화(國花)’, ‘국산(國山)’에 이어 내친김에 ‘국복(國服)’까지 정하자는 제안을 내놓아 눈길을 끌고 있다. 국화 논쟁은 오래됐다. 지난 20년간의 논쟁 끝에 모란과 매화를 모두 국화로 지정하자는데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국산 논쟁은 이제 시작했다. 양화 기간에 산둥(山東)성의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대표가 오와 가운데 하나이면서 제왕이 하늘의 뜻을 받는 봉선(封禪) 의식을 거행한 태산(泰山)을 ‘국산’으로 지정하자고 건의, 네티즌들의 댓글이 올라오고 있고 경관이 오와

를 억누르려는 황산(黃山) 시위원회가 발끈했다. 중국은 다시 국복 논쟁을 시작할 태세다. 일본은 ‘화복(和服)’, 한국은 ‘한복(韓服)’, 베트남은 ‘아오자이’, 인도는 ‘사리’라는 전통의상으로 민족적 특색을 뽐내고 있지만 중국은 마땅히 내세울 게 없다는 것이다. 인민일보의 인터넷판인 인민망 14일자에 따르면 전국정치협상회의(정협) 위원인 예홍밍(葉宏明)은 “중산복이나 치파오를 서방에서는 중국의 ‘국복’으로 알고 있지만 민족정신을 드러내기에는 부족하다”면서 “한대의 복장인 ‘한복(漢服)’을 ‘국복’으로 정하자”고 건의했다. 이전에 중산복을 ‘국복’으로 정하자는 의견이 있었지만 별로 호응을 받지 못했다. /상하이=연합뉴스

Cell Banking

생명김은, 건강할때 자신의 세포를 보관해있다가
혈액중 주요 질병 발생시 치료에 사용하는 1:1 맞춤형치료의 시작입니다.

국립중앙의료원 | 한국과학기술원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한국과학기술원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1777-3475

Clean Hospital

병원내 발생하는 각종 질병을 말끔히 깨끗해 드립니다.

병원가방, 의료장비, 환자복, 의료기, 가운

1. 환자기계 | 2. 환자복 | 3. 의료기 | 4. 가운 | 5. 병원가방

Blotlys Korea가 알려줍니다

대리점 모집

Blotlys Asia | (062)531-3177, 3399